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제7회 장애인 한마음 축제 개최

고창군이 지난 1일 태흥웨딩홀에서 제7회 장애인한마음대회를 열었다. 고창군 장애인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심석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교의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고창군 장애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장애인 표창패 수여, 박현규 고창군 장애인 후원회장의 기념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 장애인 표창패 수여는 고창군 4개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복지 발전에 헌신해온 모범장애인 및 유공자 4명에게 돌아갔다. 박현규 고창군 장애인 후원회장은 "장애인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항상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수성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 추진

정읍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나선다. 시는 수성동 일원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우수저류 설치와 우수관거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수성지구는 정읍천으로 방류되는 (구)조곡천의 복개 암거와 주간선 배수암거의 통수능력 부족, 내부 배제 지면 등으로 중·상류 지역의 월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2011년과 2020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일부 주택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해 지난 6월 13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해 10월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했다. 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78억원(국·도비 124억)을 투입해 우수저류지 1개소 신설, 우수관거 개선 2.76km, 유역분리BOX 신설 0.6km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원안내 챗봇, 카카오톡에 적용

정읍시, 24시간 행정서비스... 7개 분야 103종 질의응답 제공

정읍시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신규 개설한다. 시는 24시간 실시간 민원응대가 가능한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를 시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에 적용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챗봇은 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 접속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7개 분야 103종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챗봇 서비스는 카카오톡 친구찾기 기능을 통해 정읍시청을 친구로 추가한 후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챗

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 가능하다.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시청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기시간 없는 신속하고 빠른 민원 상담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단순·반복적인 민원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사용자들의 검색기록과 데이

터 이용 분석을 통해 추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정읍 시청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챗봇 이용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카카오톡과 홈페이지에 챗봇 서비스 운영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시간 행정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한층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사랑상품권 320억원 절찬리 '완판'

내년 1월부터 할인판매 재개

부안군이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 추진한 부안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가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총 320억원 판매를 기록하며 11월 2일 판매를 종료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조기 완판의 원인으로 물가 급등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10% 할인혜택이 있는 부안사랑상품권의 관심과 수

요증가를 꼽고 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해마다 국·도비가 감축되는 가운데에서도 2023년 발행액을 작년과 동일액인 320억원 발행했고 국·도비 등 예산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11월 2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부안군은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 1월부터 할인판매 재개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사랑상품권이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자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사랑상품권은 2019년 처음으로 지류형으로 발행되어 현재는 상품권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와 모바일로만 발행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은 2,746개소가 가입되어, 42,241명이 부안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내장산 단풍 이번 주말 절정... 다음주까지 이어질 듯

정읍 내장산 단풍이 이번 주말 절정을 만난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붉게 물든 내장산은 그 다음주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전망이다. 당초 내장산 단풍은 10월 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균기온 상승과 불볕더위 등 이상기후로 절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산림청 등은 설명했다. 흔히 단풍나무는 한 종류만 있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나뭇잎과 모양 등에 따라 모두 종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고로쇠나무 등의 잎은 손바닥 형상을 띄며 5~7개의 갈래가 있지만, 신나무는 3개, 당단풍은 9~10개로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산홍(山紅), 수홍(水紅), 인홍(人紅)의 내장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 당단풍, 좁은단풍, 털참단풍, 고로쇠, 왕고로쇠, 신나무, 복자기 등 총 11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내장산 단풍은 아기 손처럼 잎이 작고 진한 붉은 빛을 띄어 '해기단풍'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주문에서 내장사에 이르는 단풍터널은 내장산 단풍 풍경 중 단연 으뜸이다. 108주의 단풍나무에서 뿜어내는 붉은 가을정취와 천년고찰이 주는 편안함과 고즈넉함이 만나 관광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우화정과 어우러지는 단풍

의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느낌을 준다. 우화정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장산 풍경을 감상하면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숨겨진 풍경을 볼 수 있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내장산의 단풍이 절정을 이뤄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볼 수 있겠지만, 비가 예보돼 있어 잎이 빨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변산면 위하는 마음 고스란히”

최성문 GS25 대표 · 새마을부녀협, 변산면지 편찬 각 100만원 협찬

최성문 GS25 부안변산점 대표와 변산면 새마을부녀협의회(회장 윤경순)가 변산면지 편찬을 위해 변산면지 편찬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채)에 각각 협찬금 100만원을 쾌척했다. 최성문 대표는 변산면지 편찬을 위해 가장 처음 협찬금을 후원했으며, 변산면 격포피출소 생활안전협의회장 및 변산면지 편찬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다방면으로 변산면 발전에 힘쓰고 있다.



변산면 새마을부녀협의회는 사회단체 1호 협찬단체로, 윤경순 회장은 변산면지 편찬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최성문 대표와 윤경순 회장은 "변산면지가 우리의 생활사를 고스란히 담는 기록이 될 것"이라며 "후대에 자손들이 열람하고, 역사의 자취를 되짚을 수 있는 변산면지 편찬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채 변산면지 편찬 추진위원장은 최성문 대표와 변산면 새마을부녀협

의회에서 면지 편찬에 첫 번째 개인·단체 협찬자로 동참해준 뜻깊은 의미 부여와 감사함을 전하며 "변산면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면지편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산면지 편찬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총회를 거쳐 총 207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수진, 연구원, 향토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집필진을 구성하여 객관적이며 여러 분야를 집대성한 면지를 편찬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클릭 한번으로 '유네스코 7가지 보물 여행'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고창군의 세계유산 관련 주요 12개 명소를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게 됐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창방문해 홈페이지(tour.gochang.go.kr)의 7가지 세계유산 VR 가상여행 코너가 본격 서비스 된다. VR가상여행에서는 고창군의 △지질공원 명소(병마루, 선운산(천마봉, 마애불, 진흥굴) 등 5개소) △무장기포지 △고인돌유적 △탐사르고창박물관

센터 △고창관소리 관련 △고창농악 관련 △생물권보전지역관련 5개소로 구성됐다. 실감나는 화면이 구현되며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세계유산의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4차 산업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은행, 부안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100상자 전달

부안군은 JB전북은행이 2일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100상자(300만원 상당)를 부안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과 JB전북은행은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 김범식 부안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따뜻한 나눔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는 전북은행에 감사드리며 청소년이 행복한 부안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부행장은 "여성청소년의 필수품인 위생용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도움이 되며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달받은 보건위생용품 100상자는 부안군 13개 읍면 및 시설에 배부돼, 소외된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